



‘금남로의 휴머니스트’ 故 임춘평 박사

## 가난한 화가들 도우려 그가 사줬던 그림들 메세나로 살아나다

사후 20년만에 ‘임춘평 소장전’ 19~31일 무등현대미술관 ▶ 관련기사 3편

1980년대 광주시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 뒤 성안식당. 그곳에는 늘 어려운 사람에게 주머니를 털어 주던 한 기인이 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멧과 풍류에 젖어 매일 밤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으며, 가난한 화가를 만나면 그림을 사주고 불우한 학생들에게는 매 학기마다 잊지않고 장학금을 건네주었다.

금남로 3가에 반듯한 피부과 병원을 차려놓고도, 본인은 늘 허름한 점퍼차림이었다. 어쩌다 새옷이나 구두를 입고 나가면, 가난한 화가의 험웃과 바퀴 입고 오는 날도 많았다.

시인 문병란이 ‘금남로의 휴머니스트’라고 불렀던 임춘평(전 임춘평과부와 원장) 박사는 호남의 대표 풍류가객이며, 소리없이 온정을 베푸는 낭만적 자유주의자였다.

그의 메세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임춘평 컬렉션’ 전시가 그의 사후 20년 만에 광주에서 열린다. 오는 19일부터 31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펼쳐지는 ‘문화사랑나눔

빛내가며 작품 구입하고  
불우학생들 숨은 후원도  
두 아들 대이어 장학사업

임춘평 소장전’이 그것이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150여 점에는 작가들의 빠듯한 살림살이를 걱정해 빛을 얻어가며 작품을 사들였던 그의 나눔 정신이 고스란히 스며있다.

서양화가 우재길씨는 “이 그림은 재산 가치가 있으니 꼭 가지고 있어야”고 말려도, 남들에게 나눠주곤 했다. 돈을 받지 않고 치료해 준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 정작 자신은 달랑 집 한 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빛을 내서라도 남을 돕던 그였기에 가족의 삶은 고달팠다. 매일 병원에서 돈을 받으러 오는 일수쟁이를 때문에 ‘돈 잘 버는 병원 원장 가족들’은 아까wie 살아야 했지만 임 박사가 모은 작품에는 단 한 번도 손

을 대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들은 돈보다 더 큰 유산을 얻었다. 임 박사의 두 아들 대원(39·조례순천안과 원장)·주영(37·순천 임주영과부와 원장)씨가 대를 이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매달 200만원씩 모으고 있다.

“나눔은 더 큰 나눔을 낳는다”는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가장 동적인 유산을 물려 받은 것이다.

또 이번 전시가 개막하는 19일 오후 3시에는 딸 복희(44·광주시향 단원)씨, 아버지와 절친했던 고진양옥 화백의 딸 진채리씨 등이 임 박사를 추모하는 작은 음악회도 연다.

조선대 국문과를 나온 임 박사의 아내 박영자(70)씨도 남편에 대한 추억을 담은 시집 ‘아름다운 인연’(시와문화)를 출간해 이날 첫 선을 보인다.

박씨는 “소리없이 이웃을 도왔던 남편의 손때 묻은 소장품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터치 센터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솔렌시스(주)가 16일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 내에 제1공장을 준공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솔렌시스의 우관제 대표이사, 제임스 정 부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솔렌시스, 광주 와줘서 고맙다”

터치센터 액정 원천기술 업체 어제 첨단산단 준공

터치센터 전문기업인 솔렌시스(주)가 16일 광주 사이언스밸리(첨단산단)에서 스마트폰과 네비게이션 등에 사용되는 터치센터 패널과 모듈공장을 준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터치센터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 회사는 지난 9월 5100㎡ 부지에 110억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3170㎡ 규모의 광주 제1공장을 준공했다. 이 공장은 3.1인치에서 10인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터치 패널과 모듈을 월 50만

동 등으로 구성됐으며, 12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월 매출액은 50억~7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회사가 생산하는 터치센터 패널과 모듈은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전류를 인식해 작동하는 정전용량(Capacitive) 방식의 신기술로 개발됐다. 이 방식은 터치감이 부드럽고 오작동 우려가 적을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두 가지 터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멀티터치도 가능하다. 솔렌시스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시

넬릭사에서 세계 최초로 터치패드 개발을 주도한 제임스 정(한국명 정진화)씨를 부사장으로 영입해 패널과 모듈 국산화에 성공했다. 정 부사장은 LG전자의 수출형 프러다폰과 초콜릿폰, 캐나다 리서치인모션(RIM)의 블랙베리 스톰, 구글 G1 등에 사용된 터치패드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정도로 이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터치패드 재료와 설계에만 그치지 않고 국내 반도체 공

을 접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 공정으로까지 연결하는 터치패드 설계 및 제조 국내 특허를 획득했다. 조만간 국제 특허도 출원해 해외 기술 수출에도 본격 나설 계획이다. 솔렌시스는 제1공장 준공에 이어 첨단산단 2지구 1만6500㎡의 부지를 추가 확보해 내년 하반기에 월 400만~500만개의 터치패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태국·감비아 등지에서 해외 공장 건설을 위한 건설링도 진행 중이다. 우관제 대표이사는 “우리나라가 터치센터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못해 최근 3년간 5조원 규모의 로열티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며 “스마트폰과 네비게이션 등에 적용할 수 있는 터치센터의 본격적인 생산 및 수출로 내년에 1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한파’ 광주·전남 최대전력수요 역대 최고

전기난방 사용 급증

최근 강추위로 난방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렸다. 16일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순간 최대 사용량을 의미하는 최대전력이 15일 오후 6시 7130만8000kW로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8월20일 오후 3시 기록한 최대전력 사용량 6988만6000kW를 크게 넘어선 것이다.

광주·전남지역도 15일 사상 최대 전력 사용량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날 새벽 0시 광주·전남 최대 전력사용량은 485만2000kW로 종전 최고 기록인 482만9000kW(1월7일 밤 12시)보다 2만3000kW 뛰어넘었다. 이같이 전력수요가 급증한 것은 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난방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광주·전남은 광양제철소 등 전력수요가 많은 대기업에서 주간시

간에는 자가발전으로 전기를 자체 충당하고 심야시간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전 전기를 사용하면서 주간보다 야간에 전력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시 모집 12월 17일~22일  
개교 원서접수 12월 1일~1월7일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 금호고속 ‘64년 무분규’ 깨질 듯

노조 18~20일 시한부 파업

금호고속의 ‘64년 무분규’ 전통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18~20일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금호고속지회는 16일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일 새벽 4시부터 20일 오전 10시까지 1차 시한부 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금호고속지회는 회견문에서 “지난 7월 지회를 설립한 이후 15차례에 걸쳐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은 복수노조를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해고와 징계, 고소·고발, 노조 와해 공작 등으로 조합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사측에 대항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은 지방노동위

원회의 조정 신청과 찬반투표를 거친 합법행위”라며 승객과 운전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시간 운행금지, 노조 인정 및 단체교섭, 노조활동 보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편파적 배차 금지 등을 요구했다. 금호고속지회는 파업에 앞서 17일 밤 총파업 전야제, 18일 오후 2시와 19일 오전 10시 종합버스터미널 건너편에서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 계획이다. 파업이 현실화되면 시민 불편도가 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고속은 이미 30대분의 운행 감축에 들어갔고, 금호고속지회가 파업에 돌입하면 광주~목포, 광주~해남 등 전남지역 14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청정수 (淸淨水)  
**1사 1하천 살리기 운동**  
셋강의 수질개선과 수생태 건강성 회복은 우리의 손으로 가꿉시다.  
**함께해요!**  
**셋강 살리기**  
영산강유역환경청 | 후원 | 광주일보